**마1125(2) Note**

**◆ 그 발 앞에 엎디어( p40)에서**

진심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말을 통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마치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과 같은 것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인 동시에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었으므로 그 중에는 영으로 된 것과 인간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Ω요0663. 소생되는 것은 영(靈)이니, 육신은 아무것에도 유익하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그것들이 영(靈)이며,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쓴 선지자와 사도들 중에 임하였던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심할 것 없이 성경의 의미는 영적인 것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다만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씌여진 모국어는 바로 영의 언어로서, 즉 성령의 감동으로 씌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 발 앞에 엎디어 p40)

◆성경은 주님의 삶과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계시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참된 저자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단어 자체가 개별적으로 거룩하거나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감을 받은 것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저자, 곧 성령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때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분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성령과 연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 및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제자들을 인도하셨으며,

바로 이 성령만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언어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나 비평을 알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린이가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고향인 영적인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일 뿐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다싱을 만나다,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p82)